

# 2018.7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대전 MBC

# 2018년 7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사명 : 대전문화방송(주)

## 1. 회의개최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수		비 고
		위 원	방송사	
2018.7.31	대전MBC 대회의실	7/11	6	

- 시청자위원 불참자(명) 명단 : 신성철, 정대식, 함진호, 김종남
- 방송사 주요참석자 명단: 사장, 이재근 경영기술국장, 박선자 편성제작국장, 신영환 보도국장, 서주석 사업국장, 임세혁 경영심의부장

##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건수)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6	13	-	-	19	-	19

### 나. 사업자 반영(건수)

구 분	수 용	의견참고	반 론	계
건 수	17	2	-	19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 월
계	10건	10건	6·7·8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세트 변화	시사토론 프로그램 스튜디오 세트 및 디자인 변화 줌	7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당사자 일방이 아닌 쌍방의 입장을 담을 수 있도록	시사플러스 “어린이 재활병원(7/30)” 장애가족과 관계기관 입장 반영	7월
보도	시사토론 프로그램 질문과 답변 적절하게 자막처리 해주길	시사토론 M “민선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7/15, 7/22, 7/29)”편에서 자막 활용	7월
보도	선거방송 경마식 보도, 후보자중심의 흥미위주 보도에서 벗어나길	‘키워드로 분석한 지방선거(6/11)’, ‘지방선거로 꽃 피우는 동네민주주의(6/13)’등 다양하게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선거보도 프로그램 제작	6월
보도	평일 뉴스 앵커 혼자 진행 단조롭다	저녁 뉴스데스크, 아침 뉴스투데이 남녀 2MC 기자 공동진행(8/5)	8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대학교수) 진행력 미숙, 진행용지를 A4용지 아닌 큐 카드로 대체해주길	시사플러스 진행자 회가 지날수록 진행속련도 변화 있음. 큐카드 활용	7월
교양	교양 프로그램(모든 것 연구소 올랩) 패널 남성위주임. 여성 패널 안배	모든 것 연구소 올랩 “대전역 원도심 탄생”(7/10) 대전문화연대 박은숙씨 출연	7월
보도	“라돈 침대” 뉴스 내용이 달라져도 동일 영상 반복 재생하고 있어 영상취재 보강	뉴스데스크 “라돈 검출 매트리스 해체(7/31)” 자료화면 아닌 영상취재	7월
교양	시사프로그램 이슈를 추적하여 탐사프로그램 성격을 강화	시사플러스 “4대강 보 개방 1년, 금강은 지금?”(7/16) 등 이슈 추적	7월
교양	TV특강 프로그램 학벌조장, 지역차별 같은 내용은 걸러주길	TV특강 “역사 속 좋은 리더, 나쁜 리더(7/16), 가치관 수정(7/30)” 등 프로그램에서 살펴 봄	7월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 청 내 용	조 치 내 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사항 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성 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해당사항 없음	

3.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관련 공개 청구

요청자(단체)	공개내용	공개방법
없음	회의 내용 및 처리결과	홈페이지

나. 시청자위원 변동사항

임기: 2018. 5. 01.~2019. 4. 30.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분	비고(임기)
위원장	신성철	KAIST총장	한국과학기술 한림원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송길현	목요언론인클럽 고문	목요언론인클럽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경희	대전여성단체연합 대표	대전여성정치 네트워크	여성단체	18.05.01~ 19.04.30
위원	함진호	ETRI 표준연구본부 책임연구원	ETRI	과학기술단체	18.05.01~ 19.04.30
위원	권부남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장	대전YWCA	청소년단체	18.05.01~ 19.04.30
위원	정대식	금성백조주택 사장	대전상공회의소	경제단체	18.05.01~ 19.04.30
위원	이용원	월간 토마토 편집인	(사)문화유산올림	문화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은주	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변호사단체	18.05.01~ 19.04.30
위원	김종남	대전YWCA 사무총장	대전YWCA	소비자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대전지부	학부모단체	18.05.01~ 19.04.30
위원	양선희	대전대학교 글로벌융합창의학부 교수	충청언론학회	언론관련단체	18.05.01~ 19.04.30

\*김경희, 권부남, 정대식, 이용원, 김종남, 양흥모, 양선희 위원 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의견제시 및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 (7월)

구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교양	모든 것연구소 올랩(7/24)에서 “문화예술의 중심 대흥동”을 다루었다. 패널들 얼굴 아래쪽에 카메라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어 패널들 2명의 얼굴을 아래에서 보여주다가 정면 모습을 보여주는 식의 교차편집을 반복하는데, 시선이 아래쪽에서 위로 올라다보는 식으로 갔다가 정면으로, 정면으로 갔다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다 보는 식으로 왔다갔다 하다 보니, 멀미가 났다. 이런 편집은 신선하기는 하지만, 너무 자주 반복되니 속이 불편해서 결국 채널을 돌리게 되었다.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김은주).	최근의 프로그램 제작 추세는 다양한 샷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단 오락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이 추세를 반영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의 카메라 워킹이라고 이해를 해주었으면 한다. 다만, 과도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제작진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			
교양	대전의 도시재생사업 관련 이슈와 쟁점(시사플러스 7/2)을 거시적으로, 미시적으로 잘 다루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이 원도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모습을 영상으로 조금 더 오래 보여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국가와 시가 원도심 재생사업에 돈을 많이 썼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많이 나와서 어떤 곳에 돈을 많이 들였는지 궁금증을 유발했는데 끝까지 해소가 되지 않았다. 한편, 지난 달 보다 사회자의 진행이 더 부드러워져서 보기 편했다(김은주).	늘 노력하고 있지만 내용적 완성도가 완벽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제작진의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진행자 부분은 좀 더 원숙한 진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보도	보도국의 "시사토론M"에서 보여준 '민선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 시리즈 기획이 신선했다. 주로 거시적인 이야기였지만, 앞으로의 시정이나 도정 운영의 방향을 엿볼 수 있어서 유익했다(김은주).	시사토론 프로그램의 구성과 내용을 시청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만들겠다.	○		
교양	모든 것 연구소 All Lab(7/10, 7/17, 7/24)에서 대전 원도심 시리즈로 1탄 대전역과 원도심의 탄생, 2탄 칼국수와 두루치기, 3탄 원도심 문화예술 중심 대흥동을 다루었다. 7월 3회에 걸쳐 제작 방송한 '대전 원도심 시리즈'는 모처럼 지역을 테마로 제작된 방송이라 많은 관심을 받았다고 본다(sns 공유 및 댓글 등 다수) 단발적인 방송이 아니라 원도심에 대해 탄	해당 테마의 기획의도 자체가 우리 지역의 역사와 발전을 되짚어보고 지역의 특성을 보여줄 수 있는 원류를 찾아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선택된 세 개의 키워드로 3주간의 시리즈를 제작했는데 나쁘지 않은 평가에 감사하다. 프로그램 특성 상 패널의 모든 발언이나 멘트를 사전에 검증하거나 제어할	○		

	<p>생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시각으로 살펴본 려한 진지한 접근방식도 좋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및 민선7기의 출범과 맞물려 시사성도 좋았다고 본다. 실제 현장 문화예술인 및 활동가들이 패널 로 출연함으로써 현장감과 사실성을 높이 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일부 패널의 지나친 억측 및 근거 없는 설명은 sns상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 다. 특히 칼국수와 두루치기 편이 그러하 다. 향후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 콘텐츠를 제작 방송함으로써 지역방 송의 공공성을 확대해나가길 바란다(김경 희)</p>	<p>수 없는 부분은 이해를 바라나 후반 편 집 작업을 통해 지적하신 부분들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은 최대한 걸러 낼 수 있도록 하겠다.</p>			
<p><b>보도</b></p>	<p>방송서비스 모바일 및 SNS 확대는 시대에 맞춰 잘 개선되었다고 본다. 이제 기반이 마련되었으니 방송 서비스 제공에서 시청 자, 시민들과 소통과 참여의 수단으로 활 용이 되어 방송 기획과 운영에도 반영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도록 보완도 필요해 보 인다(양흥모).</p>	<p>다양한 계층의 뉴스 수용자를 위해 보도 부문의 모바일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고 유튜브 등 구독자 수도 증가 추세에 있 다. 지상파 뉴스의 외연을 확대해 다채 롭고 품격 있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더욱 노력하겠다.</p>			
<p><b>교양</b></p>	<p>&lt;모든 것 연구소 All Lab&gt; 등 신규 프로 그램 신설, &lt;시사플러스&gt; 오후 8시 배치 등 지역사회 의제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강화되어 공공성이 높아졌다. 그래도 여전 히 제공자 중심이라는 한계가 있다. 사실 시민사회는 대전MBC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변화가 크지 않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 고 판단된다. MBC가 무엇을 준비하고 기획 하고, 운영은 무엇이 새로워지는지 여전히 잘 모른다. 이제 공영방송은 지역 사회와 같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운영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 민주적인 공영방송을 제대로 만들뿐만 아니라 민영방송과 차별성 및 경 쟁력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법적인 시청자 위원회 운영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소통 및 참여를 높일 필요가 있 다고 본다(양흥모)</p>	<p>지적하신 문제는 내부에서도 심도있게 고민하고 있는 문제임이 분명하다. 충분 하지 않은 자원과 인력으로 모든 것을 한 번에 해낼 수 없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는 변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로그램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자 들이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분 위기를 만들어내고 기회들을 제공하도 록 하겠다.</p>	○		
<p><b>보도</b></p>	<p>하반기 협치와 관련 방송 기획이 필요하 다고 본다. 새로운 지방정부의 운영으로 이 야기되는 협치, 민주적인 의회 운영, 시민 참여 행정 등 민선 7기 방향을 제시하는, 아니 그 이상의 촛불시민혁명 이후 시대정 신을 반영한 새로운 지방정부 운영 방향에 대한 모색과 사례 및 시스템 제시 등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이 필요하 다. 이 기획도 지역사회와 초기부터 같이</p>	<p>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보도부터 공약에 중점을 두고 보 도하고 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에는 집행부와 의회의 현안을 중심으로 공약 을 집중점검하고 있는데 지방분권 시대 와 맞물린 지방정부의 운영과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지방자치 참여 등에 관한 기획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p>	○		

	논의하면 더욱 좋겠다(양흥모)			
보도	<p>“시사토론 M”에서 &lt;민선 7기 단체장에게 듣는다&gt;를 타이틀로 단체장과 토론을 했다. 지역방송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담은 기획력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었다. 패널이 많을 경우 이야기가 잘 모이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될 경우 자칫 내용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출연 패널은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 선정하고 ENG를 활용해 일반 시민 질문을 받은 것은 좋은 기획으로 인상적이었다.</p> <p>허태정 대전시장 편에서는 공직사회, 여성, 청년, 동서격차, 교육, 트램 등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으나 무엇 하나 속 시원하게 들리지 않았다. 한 시간 남짓한 방송 시간 동안 시원한 무엇인가를 꼬집어낼 수는 없겠지만 핵심 주제 한두 가지를 미리 설정하고 깊게 들어가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이용원).</p>	한정된 토론시간이지만 주제가 함축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전달방법과 포맷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		
교양	<p>&lt;모든 것 연구소 All Lab&gt;에서 원도심에 관해 이야기를 풀어갔다. 지역방송에서 다룰 수 있는 좋은 소재인 것은 분명하다. 대전역과 원도심, 칼국수와 두루치기, 원도심 문화예술 중심 대흥동에서 다룰 수 있는 소재를 다룬 구성이기는 하지만, 연구소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원도심이 지닌 대전이라는 도시 안에서 의미를 좀 더 깊이 파고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편 패널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는데 관련 질문이 없어 아쉽다(이용원).</p>	<p>‘깊이와 넓이’ 사이에서 늘 고민하고 있다. 논의의 깊이에 치중하다 보면 자칫 폭넓은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기 힘든 측면이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p> <p>깊이 있으면서도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제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p>	○	
교양	<p>&lt;시사플러스&gt;가 400회 특집을 맞아 그동안 방송했던 내용을 재편집해 지역현안을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후속 취재스타일로 다시 찾아본 것도 의미가 있었다.</p> <p>“지역의 현안을 직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려고 노력해온 지난 10년, 초심으로” 라는 사회자 멘트처럼 ‘현안과 사회적 약자’ 라는 키워드에 대한 개념 정의를 명확할 할 필요가 있었다(이용원).</p>	지적하신대로 초심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더욱 지역에 천착하는 프로그램 제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	
교양	<p>이달 프로그램 몇 편을 보면서 지역언론으로서 대전MBC가 수행해야 할 ‘의제 설정기능’에 관해 생각해 보았다.</p> <p>앞서 적시한 세 가지 프로그램 모두 이 기</p>	<p>&lt;편성제작국&gt; 솔직히 지난 10년의 상채기가 완벽하게 아물고 새 살이 돋아난 상황이라 보기에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선을</p>	○	

	<p>능을 수행하기 위해 혹은 수행하는데 적절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p> <p>그럼에도, 속 시원함보다는 왠지 답답함 좀 있었다. 중구난방이어서 전체를 관통 핵심 줄기가 없이 맥 빠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p> <p>1. 의제 설정 과정에 관한 고려를 해주면 좋을 듯하다.</p> <p>시민이 함께 숙의하고 변화를 꾀하고 실제로 결과를 산출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대전MBC가 함께 해주었으면 좋겠다.</p> <p>&lt;올랩&gt;의 경우 자문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t;시사플러스&gt;와 &lt;시사토론M&gt;도 외부 자문위가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의 현안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이중 의제로 삼아야 하는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객관적 시스템을 마련하면 좋을 듯하다.</p> <p>2. 구체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을 시민이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p> <p>큰 그림을 그리고 그 안에서 각 프로그램이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을 나누는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 지금 우리에게 지역언론(방송)이 왜 중요하게 필요한 지를 확인시켜 주어야 한다(이용원).</p>	<p>다해 지역 언론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p> <p>1. 제작진의 머리 속에서 모든 것이 나올 수는 없다는 점은 명확하다. 지적하긴대도 자문위 수준은 아니더라도 끊임 없이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놓치지 않도록 연결망을 확보하고 강화하도록 하겠다.</p> <p>2. 각각의 제작자들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이를 통합해내는 데스크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다. 지적에 대해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p> <p>&lt;보도국&gt;</p> <p>대전 MBC 뉴스의 새로운 방향은 지역 사회 의제설정 기능의 강화이다.</p> <p>시사토론M의 경우 데스크-연출자 그리고 보도국 내에서 수렴된 아이템 풀과 전략회의를 통해 그 주의 토론 주제를 정하고 있다. 토론의 주제를 외부와 숙의하고 변화를 꾀한다는 것 자체는 제작 자율성의 침해 문제를 떠나서 양측의 시각과 입장차, 그리고 이를 통한 시청자들의 객관적 판단이 가장 중요한 토론이라는 본질과 부합할 지 의문이다. 특히 일정 부분의 결과라는 것이 편향성을 띠 경우 방송의 공영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 사료된다. 이 때문에 언론에서는 토론 주제와 진행방식 등에 대해서는 객관성과 균형성을 제1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다. 보다 다양한 시청자들에게 울림이 있는 주제를 선택하는데 주력하겠다.</p>			
<p>보도</p>	<p>&lt;뉴스데스크&gt;</p> <p>1. 4대강으로 4조원 손실...K Water (7.4)</p> <p>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손실에 대한 중앙언론의 대대적 보도 속에 지역에 기반하고 있는 수자원공사와 관련한 뉴스를 다룬 것은 중앙뉴스를 지역의 관점에서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p> <p>2. 부여 연꽃축제 개막(7.6)</p> <p>부여 연꽃축제 개막과 다양한 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화면은 개막 전 정적이고, 인적이 드문 궁남지 전경을 내보내 뉴스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았다. 개막 당일 영상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전년도 자료화면을 일부 활용해서라도 연꽃축제 영상이 제시되</p>	<p>1.4대강 사업에 관한 감사원 발표후 지역 문제와 직결한 수자원공사의 손실과 정책 판단에 관한 문제점을 짚어 보는 리포트를 제작한 바 있다. 전국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사안에서도 지역의 이슈들을 효과적으로 추려서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p> <p>2.뉴스 보도 시 다양하고 생동감 있는 화면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편성국 영상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p>			

	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뉴스 내용과 동떨어진 영상이라 뉴스의 퀄리티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했다(양선희).			
교양	<p>&lt;시사플러스&gt;  “도시재생” (7/2)  도시재생과 관련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무엇인지? 전반적인 구성이 하나의 맥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핵심도 파악되지 않았다. 도시재생과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무슨 관계인지?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해 예술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군산, 대구 등의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대전의 도시재생 문제를 다뤘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한다.  취재원이 많은 것과 인터뷰이가 많은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인터뷰이가 너무 많고, 프로그램의 상당부분을 차지해 전반적인 흐름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는 인상을 받았다(양선희).</p>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나온 것 또한 사실이다. 이는 결국 제작진에게 책임이 돌아올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제작진과의 소통을 통해 좀더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		
교양	<p>시사플러스 400회 특집. &lt;지역 현안을 돌아보다(7/23)&gt;  지역방송의 척박한 현실에서 동일한 타이틀로 시사프로그램을 10년 이상 제작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곳곳하게 지켜와 치하를 드린다. 방송시점과 현재를 비교해서 제시한 부분들은 매우 의미 있었다. 10년 간 지역현안의 흐름을 데이터를 통해 알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예를 들자면 가장 많이 다루어진 분야 또는 이슈,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등이 그러하다(양선희).</p>	400회 특집이긴 하지만 제작 여건 상 오랜 시간을 두고 해당 회차를 구성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변명 같지만 이는 제작인력의 문제와도 맞닿아있다. 향후에는 같은 사안에 대해 변명을 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제작 인력 구성에 대해 고민하겠다.	○	
교양	<p>&lt;모든 것 연구소 All Lab&gt;  “백제의 시간, 공산성과 부소산성” (7/3)  최초의 여성 패널(공주대 박물관 연구실 이현숙 박사)이 출연하였다. 자신감이나 활력, 유머 등 매우 긍정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기 좋았다.  구성면에서 사진 이외에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CG 활용도 고려해보길 바란다(양선희).</p>	아이템에 따른 패널 섭외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 의사는 전혀 없다. 이번처럼 해당 분야에 여성 전문가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섭외하도록 하겠다.	○	
교양	<p>&lt;모든 것 연구소 All Lab&gt;  “대전역과 원도심의 탄생” (7/10)  원도심 첫 번째로 원도심을 도시재생이나 개발 등의 산업적 프레임이 아닌 문화적,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시각이 매우 좋</p>	한 명의 CG 인력과 자막 요원이 프로그램 전체를 담당하는 상황이라 제작진이 원하는 수준의 CG 동원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진의 노력을 벗어난 문제일 수 있다. 데스크	○	

	<p>었다. 다양한 패널 구성도 적절하고 흥미로웠다. 아쉬운 점은 대전에 관한 과거 사진자료 외에 전반적인 이야기와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는 CG가 활용된다면 더 재미있고 유익하지 않을까 한다. 브리핑이나 키워드 등의 프로그램 고유의 특징들을 만들어 가는 것도 이야기를 길게 늘어지지 않고, 분산된 주의를 다시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구성이라고 생각된다(양선희).</p>	<p>가 충분한 제작 여건을 확보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p>			
<p>교양</p>	<p>&lt;모든 것 연구소 All Lab&gt;  “칼국수와 두루치기” (7/17)  대전의 대표적인 먹거리인 것은 사실이지만 원도심 시리즈라는 타이틀과 잘 부합되는 주제인지는 의문이다. 또한 1탄 대전역에서 다른 가락국수, 성심당 빵과 연결되어 먹거리가 2주 연속 방송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패널구성에서 전반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이기는 했으나 패널들 간의 톤 또는 분위기 등이 어색하다는 느낌을 주었다. 푸드 칼럼니스트의 자유분방함에 비해 충청문화연구소 패널은 아무래도 다소 경직되고 주제와 밀접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았다. 패널 구성에 한계가 있다면 자리 배치를 조정해서라도 톤의 대비를 완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할 듯싶다(양선희).</p>	<p>올랩은 지금도 변화, 발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며 연젠가 지역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소소하지만 중요한 지적 하나하나를 새기도록 하겠다.</p>			
<p>교양</p>	<p>&lt;모든 것 연구소 ALL LAB&gt;  “대전역과 원도심의 탄생” (7/10)  원도심에 대한 탐구주제와 구성이 좋았고 패널 선정도 좋아서 재미있게 보았다. 몇 가지 아쉬웠던 것은 패널들에게 시간분배가 골고루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패널이 너무 많은 시간을 가져갈 경우 다른 패널이 상대적으로 말할 기회가 적어 시청자로서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두 번째, 관련 자료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넣어주면 좋겠다. 예를 들면 대전역 보급 창고가 원래 3개 있었는데 현재 1개가 남아있다는 리포터가 얘기할 때 3개 있었을 때의 전경이 궁금했는데, 제시가 안 되어 아쉬웠다. 같은 내용으로 권기봉 작가가 인천의 재활용 사례를 얘기할 때 인천의 사진을 보여줬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전역이 대전역사의 중요한 출발지였다는 것을 재미있게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원도심을 소중히 지켜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권부남).</p>	<p>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끊임없이 변화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미진하고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지점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애정을 담은 문제 제기에 대해 깊이 새기도록 하겠다.</p>	<p>○</p>		

<p style="text-align: center;">보도</p>	<p>“시사토론 M” 민선 7기 단체장에 듣는다. 양승조 충남지사편을 시청하였다.</p> <p>1.이상선 위원장의 관료, 공직자 위주의 감사위원회 구성 개선요구. 성경모 변호사의 저출산, 복지대책의 재원 대책등은 현실적 문제점을 잘 지적했음에도 지사의 답변은 원론적이었고, 구체성이 없었다. 취임 초기임을 고려하지만 선거공약이었기에 좀 더 현실적이고 실천적 계획이나 구상이 제시됐어야 했다.</p> <p>2.내포신도시의 활성화대책을 요구한 주민, 피부에 와 닿는 농업 정책을 요구한 농민, 농촌노령화의 심각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대책을 요구한 주민, 화력발전소의 대책을 요구한 현지주민들의 주장은 현실적이고 실제적이며 당연한 문제의 지적이었다.</p> <p>3.그럼에도 양승조 지사의 답변중 출퇴근 버스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국가정책으로 다뤄져야 할 혁신도시지정문제를 제시하는 등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답변이 아니었나 싶다.</p> <p>4.그러나 농촌노인대책으로 독고노인들의 현실적 생활문제인 경로당의 도우미 활용 문제와 지하철 이용이 없는 도내 노인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버스무료승차 대책등은 현실성이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의미있는 시책이라는 생각이었다.</p> <p>5.전반적으로 현지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한 질의가 간결하면서도 핵심적인 문제를 잘 지적했음에 비해 출연자들의 장황한 자기주장과 핵심에 이르지 못한 질문이 아쉬웠으며 지사의 답변 또한 전반적으로 구체성, 현실성이 떨어지는 원론적이고 선거공약재확인 정도여서 시청자, 주민입장에서 조금 아쉬운 프로그램이었다(송길현)</p>	<p>민선 7기 스타트 시점이라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들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으로 토론 키워드를 뽑아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민선 7기 정책들이 구체화되면 앞으로도 관련 토론들을 진행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 계획과 대안, 비판과 수용 등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p>	
---------------------------------------	--	---	--